

# 지진피해 희생자 애도 속 '봉축' 맞은 네팔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네팔 지진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네팔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했다. 부처님탄생지인 네팔은 한국과 다르게 양력 5월 보름날을 석가탄신일로 지정하고 있다.

5월 3일 네팔은 그 어느 때보다 슬픈 석가탄신일을 보냈다. 일부 사찰은 문을 닫았으며 대부분의 봉축 행사는 추모재로 대신했다. 추모재서 불자들은 7.8 강도의 지진이 야기한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똑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발원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스와야부나트 사원에서 열린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재에는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사원 주위를 돌고 진신 사리탑 앞에서 영가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진행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 위치한 스와야부나트 사원에서 열린 지진피해 희생자 추모재에는 수백 명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사원 주위를 돌고 진신 사리탑 앞에서 영가의 넋을 기리는 기도를 진행했다.

추모재를 찾은 산타 라마(60·여)는 "수천 명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이 땅에서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사찰 문 닫고 신도 발길 끊겨... 조용한 석가탄신일  
말레이시아, 인도 등 부처님오신날 행사서 추모재도 함께



지난 5월 3일 네팔,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열린 석가탄신일 행사는 네팔지진피해 희생자 추모재로 진행됐다. 사진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스리랑카 사찰에서 추모 기도를 올리는 모습이다.

보도했다.

한편 네팔 정부는 외국인 구조 활동가들에게 석가탄신일 행사의 규모를 축소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석가탄신일을 맞아 부처님 성지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외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했다. 현재 네팔 경찰은 지진으로 인해 손실된 불교 유적 주변을 통제하고 있으며, 원숭이들이 모여 살

아 유령세를 탄 '원숭이 사원'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을 안전상의 이유로 차단했다. 미국 워털루지역신문 '570News'에 따르면 네팔 정보부 장관 미넨드라 리잘은 "카트만두에서 주요 수색 및 구조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남은 작업은 지역 주민과 함께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외국 자원 봉사자들은 그만 귀국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동남아 지역 석가탄신일 행사에서는 네팔 지진피해 희생자를 위한 추모 의식이 진행됐다.

인구 대부분이 불자인 말레이시아 곳곳에서는 네팔 국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마하 비하라 사찰에는 봉축을 맞아 오전 6시부터 신도들이 밀집했다. 불교계 영양 및 촛불가 봉송으로 이어진 추모 의식에서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서약 행사도 열렸다.

이날 말레이시아 불교 종단의 수장 다득은 "올해 봉축행사는 부처님 성지인 네팔에서 끔찍한 재난으로 희생당한 자들을 위한 추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며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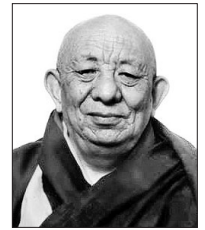
또한 인도 북동부 비하르주 마하부디 사찰에서도 5월 4일 봉축행사에서 합동위령재를 올렸다. 이날 위령재에는 비하르주지사 나이티시 쿠마를 비롯한 각국 지도자들과 유명 승려들이 참석해 마하부디 나무 아래서 묵념을 하며 애도를 표했다.

쿠마 주지사는 "비하르 주정부는 지진피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것"이라며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본의 재난 피해 최소화 대책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익률 수습기자

## 텐자브 세르콩 린포체, 스타워즈 요다의 모델

스타워즈 데이 4일 맞아 ... 영화 스타워즈와 불교와 관계 재조명



불교학자 알렉산더 베르진 박사가 영화 스타워즈의 등장인물 요다의 전형으로 지목된 텐자브 세르콩(Tenzhab Serkong) 린포체.

스님을 통해 요다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영화 스타워즈(Star Wars)의 주요 등장인물 요다는 세간의 말처럼 과연 스님을 형상화한 것인가? 다소 엉뚱한 질문이 지난 4일 '스타워즈 데이(Star Wars Day)'를 맞아 'Lion's Roar' 지가 제기했다.

'스타워즈 데이'는 스타워즈 영화 속 유명한 대사인 "포스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May the Force be with you)"의 영어 표현이 5월 4일(May the Fourth)과 비슷하게 들리는 데에서 유래한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Lion's Roar' 지는 불교학자 알렉산더 베르진(Alexander Berzin) 박사의 말을 인용, "루카스(G. Lucas) 감독은 제작에 앞서 인도 다람살라를 방문해 텐자브 세르콩(Tenzhab Serkong) 린포체를 만났고,

이에 앞서 2005년 '스타워즈의 다르마(The Dharma of Star Wars)' 메튜 볼드린 작가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 영화는 불교가 서양인들의 눈에 어떻게 비쳐지고 있는지를 가능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연구 자료로서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요다, 오비완, 루크 스카이워커 등 등장인물의 연행은 동양 정신사 특히 불교의 핵심으로 다가섰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미 젊은이들 사로잡은 17대 카르마파...명상법회 펼쳐

두 달간 일정으로 ... 주요 대학과 사찰 방문

티베트의 차세대 종교지도자로 주목받는 17대 카르마파(Karmapa) 오겐 트린래 도제가 지난 3월 15일 미국을 방문한 이래 미국 젊은이들의 마음을 다잡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The New Yorker' 지가 4월 11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카르마파 재단(KTD) 초청으로 두 달간 하버드대학, 프린스턴대학, 스탠포드대학, 레드랜드대학, 위스콘신대학 매디슨캠퍼스, 예일대학 등에서 강연 일정을 잡고 미국을 찾은 17대 카르마파가 9일 프린스턴대학교를 방문했다.

'The New Yorker' 지는 "17대 카르마파는 지난 토요일(현지 기준) 프린스턴대학 재학생과 '네팔 지진 희생자 추모 법회'를 봉행한 것을 시작으로 재학생과 깊은 교감의 시간을 가졌다"며 "재학생들은 차세대 종교지도자라고 하기에 소탈하고 진솔한 17대 카르마파의 매력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17대 카르마파는 이번 프린스턴대학 방문에서 '젠더와 성'을 주제로 진행

된 정규수업에도 참석했다"고 전한 'The New Yorker' 지는 "이는 비구니계 법백을 복원하고 지키는 데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7대 카르마파의 '페미니스트로서의 성향'이 그대로 보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17대 카르마파와 함께 '젠더와 성' 주제 수업을 들은 닉 가르텐(N. Garten) 씨는 "적갈색 가사를 입고, 샌들을 신은 젊은 종교지도자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특히 겸손하고 온화한 그의 어투에 대부분의 재학생들이 깊게 감동했다"고 말했다.

17대 카르마파는 'The New Yorker' 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나에게 심오한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지금까지 배웠고 앞으로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7대 카르마파는 프린스턴대학 명상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명상 법



프린스턴대학에서 '젠더와 성' 주제 수업을 들은 17대 카르마파(Karmapa) 오겐 트린래 도제(Ogyen Trinley Dorje)이 함께 수업을 들은 대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회'를 봉행했다"고 보도한 'Tibet Post' 지는 "이날 회원들은 '명상을 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명상을 할 때 직면하게 되는 장애'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며 "17대 카르마파는 솔직하면서도 결코 자만하지 않는 모습으로 회원들의 질문에 응했고, 회원들은 호응했다"고 전했다.

한편 프린스턴대학에 앞서 방문한 예일대학에서 공공서비스 및 이익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준 리더들에게 수여하는 '처브 펠로십(Chubb Fellowship)' 상을 수상한 17대 카르마파는 레드랜드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다.

오종욱 편집위원

## 영 불교공동체 '보금자리 마련 고심'

지역 불교계 보금자리 '승가의 집(Sangha House)' 철거



지난 2011년 개원한 영국 런던 근교 브렌트우드의 불교센터 '승가의 집(Sangha House)'과 개원 이래 원장을 맡고 있는 제인 워드(Jane Ward) 법사(사진 맨 앞쪽)

영국 브렌트우드(Brentwood) 불자들이 '수행 공간' 마련에 애태우고 있다고 'Gazette' 지가 9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런던 근교 브렌트우드의 불교센터가 해당 지역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철거 위험에 놓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브렌트우드 지역의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한 제인 워드(Jane Ward) 법사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해 왔는데, 이 비용으로 이만한 공간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제인 워드 법사는 지난 2011년 불교 불모지인 브렌트우드에 '승가의 집(Sangha House)'이라는 이름으로 불교 센터를 개원했다.

"올해로 5년째 이곳 승가의 집에서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는 제인 워드 법사는 "그동안 공동체 규모도 커졌고, 승가의 집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도 커졌다"며 "브렌트우드 불교 공동체가 서로의 힘을 더해 승가의 집에 몰아친 난관을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범어·계승·선화의 집대성
- ▶ 수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